

다산포럼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금까지 이른 게 없으면 이후에도 이를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돼!” 연로한(?) 연구자들 사이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다. 주변에는 정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안 하던’ 공부를 해서 대작을 내겠노라 수선을 피우는 이들이 적지 않고,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책 속에서 몸을 빼지 못하는 ‘천생 사생’들도 더러 있다. 저 우스갯소리는 이 두 부류를 염두에 둔 말일 텐데, 사실은 좀 더 잘 ‘늙은 삶’을 꾸꾸는 자신들을 향한 것이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후라고 해서 이전과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새 삶을 향한 태도나 다짐,

늙은 여자들의 시간

더 나가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내 삶에서 좀 더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당나라 시인 백낙천(772-846)은 자신을 향한 ‘자경시’(自警詩)에서 이렇게 말한다. “누에 늙어 고치 되어도 제 몸은 못 가리고/ 벌은 굶주리며 만든 꿀 다른 이가 차지하네/ 알아 두세, 늙어서도 집안 걱정 하는 자/ 두 벌레의 헛수고 같다 는 것을.” 이 시는 내가 아니면 그 학문이 폐기될 것처럼 여기는 자, 내가 아니면 강의실이 폐쇄될 것처럼 구는 자, 세상의 ‘임무’를 놓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자칭 석학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외부의 가치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진정한 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든 노년을 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노년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좌의정을 지낸 심수경(1516-1599)은 나이 80에 아들을 낳았다. 남아 있던 벼들이 축하 글을 보내오자 “75세 생남(生男)도 세상에 드문데 어이하여 80에 또 생남했다”라며 축하

말고 웃기나 하라는 답시를 보낸다. 한 생명의 탄생을 희화화하는 이 노인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늙음을 긍정하라는 말은 ‘여전한 젊음’을 과시하기보다 늙음 그 자체를 성찰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물학적인 젊음으로 향한 시선은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늙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계항(1598-1680)은 말과 손으로 전하던 자신의 조리법을 더 이상 전수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자 73세에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여 각 가정에 필수해가도록 한다. 임윤지당(1721-1793)은 65세가 되자 평생 써 온 글들을 모아 책으로 낼 작업을 한다. 그 작업의 변에서 “비록 식견이 천박하고 문장이 엉성하여 후세에 남길 만한 투철한 말이나 오묘한 해석이 없으나, 내가 죽은 후에 장독이나 덮는 종이야 된다면 또한 비감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생물학적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젊은 삶’과 다른 ‘늙은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지난 여름에는 연구 그룹의 여자들과 3박4일 일정의 여행을 다녀왔다. 연구와 강학이 여유로워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도 남들처럼’ 놀고먹는 다양한 시간을 가져 보자는 것이었다. 나이도 학교도 전공도 제각각인 다섯 여자들은 20년 전 해화동 다락방에서 처음 만나 ‘여성 이룬 제조’에 정춘을 바친 멤버들이다. 이곳은 서구 페미니즘 이론에 취약했던 나에게 학위 이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해준 중요한 공간이었다. 읽고 쓰고 토론하고 비평하는 가운데 다투고 울고 웃는, 길고 이미 분석을 다 드러낸 이들에게 여행

지라고 해서 낯선 땀가가 있을 리 없다. 회를 좋아하는 자를 위해 함께 회를 먹고, 구운 생선만 먹는 자를 위해 같이 생선을 먹으며, 삶은 계란을 좋아하는 자에 계란을 몰아주는 등. 새벽에 산책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게 하고, 저녁에 동네를 거니는 사람은 또 그대로 하게 하며,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잠을 자거나. ‘에어비엔비’ 이국의 아파트에서 20년 지기 늙은 여자들의 시간은 짙같이 흘러갔다. 돌아켜 보니 나는 공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벼를 얻으러 간 것이었다.

청춘 특·특

지금 당신은 행복하나요?



김지민 동신대 한의학과 1학년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올해 여름방학을 다 지나보내고 나서야 문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스무 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고교 시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와 해방감에 휩쓸렸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아침부터 야간(강제) 학습까지, 주말까지 책상 앞에 앉았던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인가. 껌만 갠 것들을 이제는 실현시킬 수 있다는 설렘과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첫 학기 중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높은 학점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운이 좋게도 원했던 결과를 얻었기에 희망이 샘솟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달성하고

자 하는 욕심은 더욱 커졌다.

처음 맞은 여름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통장을 두둑이 채웠고, 시간을 쪼개서 자격증 공부를 했다. 대학 선배들은 방학에는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지금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더 바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라며 더욱 채찍질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2학기 개강한 달째, 나에게 남은 것은 면역력이 약화된 신체와 각종 알레르기, 우울감이다. 나는 말 그대로 열정은 넘쳤지만 그 열정이 과도해 몸이 따라주지 못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어른들이 귀에 박히도록 해주신 말씀이 있다. “지금 열심히 해두면 미래의 내가 행복하고 편하다”, “남들이 놀 때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누구나 학창시절 때 한 번쯤 들었을 법한 그런 얘기다. 어른들의 말을 곧게 믿었기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이후부터 대학생인 지금까지 매사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만족을 몰랐으며 나에게 과분할지도 모르는 목표를 계획했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작정 달렸다.

나는 휴식을 취함에 익숙하지 않았다.

바쁘다고 느껴야 안심이 되고, 내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지만 스스로 ‘열심히 살기에 행복하다’고 최면을 거는 것이 습관이 됐다.

하지만 건강의 이상을 느끼고부터 하루에 8-10시간을 할애했던 알바를 쉬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정말 오랜만에, 내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몸이 아프니 우울함은 기본이고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다.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을까?’, ‘이렇게 살면서 얻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쉽고 뻔한 말이 번득 머리에 떠올랐다.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취업과 성적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시달려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말게만 느껴졌던 기사 속의 내용에 공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들지라도, 열심히 살기를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

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선풍 휴식과 여유를 갖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경쟁과 비교, 도태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학생 때부터 요구당했던 성실의 굴레 때문이라고 감히 추측해본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들 한다. 미리 준비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마라톤이기에, 자신의 몸을 살피고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 중간중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지금 행복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뒤 물론 부작용도 있다. 현재에 행복하기 위해 과제나 시험 공부를 미룰 때까지 미루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들고 있다. 부모님께서 걱정되어 한마디 하시면 “나 지금 사춘기가 왔나봐, 해야 할 때 내가 알아서 잘 할게”라고 말하는 느긋함이 생겼다.

매일 쉬고 싶고, 놀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것이 고등학교 때 오지 않았던 사춘기가 정말 지금 왔는지도 모르겠다. 걱정은 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해서 앞으로는 지지치 않고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 고

청년의 꿈이 담긴 도시 재생



윤세미 북구 도시재생행정지원센터 주민공동체팀장

흔히 도시를 역사이자 미래라고 말한다.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과 주민이 누려온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환경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려는 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요즘 화두는 도시 재생이다. ‘도시를 재생한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고쳐 쓰는 단편적인 것은 아니다.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도시의 무차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도시 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을 도시 재생의 범주에서 추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 재생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문제의 가장 심각하다. 원도심 쇠퇴와 활력을 잃어 가는 주민들의 삶터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침체한 도심 주거지를 선택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도시 재생 사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도시 재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청년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 재생의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도 중요하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역시 청년이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이고 희망이다. 이들이 도시 재생 활동에 참여하고 나갈 때 사업이 큰 동력을 얻고 사업도 활기를 띌 수 있다.

필자는 청년으로서 도시 재생의 매력에 빠져 다니던 공직을 떠나 ‘북구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수많은 도시 재생 사업 중 대학이 참여하는 유일한 선도 모델 사업이다. 대학이 가진 노하우와 자산, 기술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산학 협력 사업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와 기술력이 지역과 공유되기도 하지만, 도시 재생과 연계해 대학이 협력 사업을 하는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서 두드러진 점은 참여형이라는 점이다. 대학 구성원인 청년이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쇠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주축이 돼 노후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삶터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난 1일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 추진의 법·제도적 동력은 이미 확보됐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여 준비 기간을 거쳤고 국가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도 마쳤다.

이 사업의 청사진은 청년 창업과 청년 문화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산업 단지, 연구 개발 특구 등 핵심 거점과 연구기관 등이 연계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대표적 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하고 광주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본촌 일반 산업 단지, 광주 연구 개발 특구, 첨단 3단계 개발 지역 등을 아우른 범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확보하여 미래의 집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기도 하다.

덕분에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대학이 참여하는 선도 모델 사업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도시 재생 박람회에서 우수상과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의 잠재 가치에 대한 기대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청년이 함께하는 도시 재생의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社說

조국 장관 전격 사퇴 이젠 모두 제자리로

나라를 온통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로 막을 내렸다. 조 장관은 어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한 지 약 세 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한 것이다. 장관으로 임명된 지는 35일 만이었다.

조 장관은 “저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 불분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

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도 밝힌 그는 “저의 쓰임은 다했다”며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든 검찰 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사필귀정’이라며 반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버텨 주지’ 하며 아쉬워하는 이도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그동안 반으로 갈라져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분열과 반목과 갈등을 접고 각자 할 일을 수행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그리하여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된’ 검찰 개혁을 기어코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 진압 거부 경찰’ 명예 회복도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해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재직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에 이어 두 번째 명예 회복이다. 광주 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호미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근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에 대한 재심을 엮고 제 열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장의 행위가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 안병하 국장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를 향해 발표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밤 9시경 경찰서 내 총기를 배에 실어 고하도로 옮겼다. 그는 이 일로 파면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간 구금·고문당한 끝에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국가보훈처는 지

난해 7월 이전 서장을 5·18 유공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5·18 직후 같은 이유로 고초를 겪은 경찰 수십 명이 지금까지도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보위가 작성한 ‘광주사태와 관련된 경찰관 조치’에 따르면 문책 대상으로 안국경과 이 서장 외에도 안수백 전남청 작전과장, 양성우 전남청 경무과장, 김상윤 나주서장, 김희순 영암서장 등 간부 9명이 있다. 또 5·18 직후 직위 해제·파면·의원 면직을 당한 총경급 이상 간부는 13명, 감봉 등 징계를 당한 직원은 64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징계조치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고난을 당한 경찰들을 하루빨리 전수 조사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

無等鼓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벌써 반항점을 들고 있는 이번 국감은 예견된 대로 그동안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의 소모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민생·정책 감사 실종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의 사퇴로 남은 국감은 김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은 곳곳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시간

국감 이후에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사법·정치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당장 본회의 상정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가능하다는 최대한 조속히 처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달 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를 들어 사법 개혁안은 내년 1월말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정의당 등 근소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 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본회의의 처리까지는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 서로 여야의 정쟁에 치여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국 정국을 헤쳐 온 민심의 피로도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한다면 정국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시간이 왔다. 민생을 위해서는 때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다. 민심은 결코 간단치 않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642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